

치 사

1970년 불교미술전람회로 시작하여
한국미술의 전통과 불교미술의 방향성을
제시해 온 불교미술대전이 올해로
40주년 제25회를 맞이하였습니다.
40주년이 되기까지 본 미술대전을
이끌어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
인사를 드립니다.

불교미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인
문화로 표현하는 장르라 할 수 있습니다.

종교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지만 유구한 세월동안 겨레와 민족의 애환을 함께 하며 단순한 종교미술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우리 전통미술의 근간이 되었고, 나아가 찬란한 민족문화의 결정체로써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. 이처럼 불교 미술이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바탕에는 불교미술 작가들의 부단한 수행정진과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.

앞으로도 불교미술이 전통과 예술성을

**잃지 않도록 작가 여러분들에게 끊임
없는 수행과 정진을 부탁드립니다.
우리 종단은 40주년을 기점으로 불교
미술을 새롭게 조망하고 지혜를 모으는
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
또한, 작가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
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여 노력을
아끼지 않겠습니다.**

**끝으로 제25회 본 대전에 출품해 주신
모든 작가 분들과 수상하신 분들께
감사를 드리며, 40주년 기념 초대전에**

**작품을 흔쾌히 출품해주신 초대작가
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본 행사가
40주년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
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시는 모든
불교미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또한
운영위원과 심사위원, 관계자 여러분들께도
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부처님의
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**

불기 2554년 9월 1일

**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회장 자승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**